

17. 성전 청소/개혁이나 타파/부정이나(11:12-25)

Review: 큰 그림

- 구성 (=> 5. 마가복음 구조분석)
- 내용: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행적/삶
 - 1. 권세/제도와와의 대립/충돌 11:1-12:44
 - 2. 담화: 종말론적 13:1-37
 - 3. 예수의 수난과 죽음—전도여행의 결말, 제자들 도망 14:1-15:47
- 갈릴리(피지배지역) vs. 예루살렘(지배체제)

	갈릴리/지방 전도(1:16-10:52)	예루살렘/수도 입성(11:1-15:47)
처음 사건	제자 부름(1:16-20)	두 제자 보냄, 군중 (11:1-10)
권세와 대립/ 충돌	공회에서 (1:21-28) 무슨 권세=>1:21-28	성전에서 (11:11-33) 무슨 권세=> 11: 27-33
지도자들과 분쟁	서기관 등 (2:1-3:6)	대제사장/서기관 (11:18, 27-28; 12:1-34)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올라 옴(3:22; 7:1)	예루살렘에 주둔 (12:35-44)
주요 설교	씨뿌리는 비유 (4:1-34)	마지막 때 (13:1-37)
반응	제자—깨닫지 못함 (8:17, 21) No faith (4:40)	제자—예수를 부인, 도망 (14:50) cf. 14:62 No Faith => "have faith of God" (11:22)
	이방인, 소외된 자—예수를 따름 (10:52)	여자/이방인—예수를 따름 (15:39-41)

A. 성전 타파=>체제전복

1. 어떻게 기록되었나? (저자의도 분석)

- 사태파악 (11:11)=> (예수는 자신의 할 일을 이미 결정)
- 무화과 저주 (11:12-14)
 - 성전 대립 (11:15-18)
- 무화과 저주—확인 (11:19)

2. 성전 청소(개혁)인가 타파(부정)인가?

- 불리한 증언: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13 절)
 -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열매 없는 시절에 열매를 구한다????
 - 무화과=>이스라엘 (예레미야 24 장; 호세아 9:10)/성전=>고전 3:16
 - 열매가 없음/때가 아니다=> 이제는 성전(지배이테올로기) 시대가 아니다 => 13 장 (성전이 무너짐 예고)
 - 앞서기 외에 아무 것(οὐδέν=>τι)도 없더라=> 모양만 있을 뿐...
- Commentary: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 문자적으로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가진 이는 없다. 그 의미는? 여기서 “산”이 뜻하는 바는?
 - “하느님을 믿으라”와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의 차이는? => 예수를 믿는가 혹은 예수의 믿음을 갖는가 => 예수(하느님)의 복음 살아내기. Cf. 롬 3

B. 권세

- 이런 일들(ταῦτα)이란?
 - 한 번 이상
 - 습관=> “매양 저물어” (늘 저녁에는)
- 출처: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11:30)
 - 이테올로기/가치관의 문제=> 복음의 차이=>1:27, “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AWP)=> 권세에 대한 다른 이해
 - => 하느님의 일 vs. 사람의 일(8:33)

Reflections:

1.

예수가 성전 지배세력의 비리나 부정들을 고치고 개혁함으로써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런 '난동'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은 성전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에 대한 '부인'이다. 예수는 그 성전이 '문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그 선언은 성전 지배세력을 향한 공격이자 성전 체제의 권위에 눌러 침묵하는 인민들을 일깨우는 퍼포먼스였다.

예수의 태도는 우선 오늘날의 교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스스로를 '성전'이라 부르기도 한다)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우침을 준다. 그 교회들이 이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장한 상점 혹은 기업이라면, 그것은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부인의 대상일 뿐이다. 예수가 '그래도 성전인데' 하며 침묵하던 사람들 앞에서 "강도들의 소굴"이라 외쳤듯이 우리는 '그래도 교회인데' 하며 침묵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도들의 소굴"이라 외쳐야 한다.

그러나 예수 당시의 성전이 단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지배체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서, 예수의 태도를 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해 보아야만 한다. 예수는 억압의 사회체제가 피억압자들의 비굴과 무기력에 힘입어 유지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앞서 말했듯 인민들은 성전의 실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것은 더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느님은 저곳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을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엔 예의 순진함 외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는 비굴과 무기력이 들어 있었다. (김규향, 예수전, 180-181)

[Jesus' attack on the traders and money changers] extended also to their customers (τοὺς ἀγοράζοντας) and even to anyone who was carrying things through the area. It was a repudiation of the way the temple's affairs were being conducted (and therefore of those under whose authority this took place), not simply an attempt to correct abuse of the system.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p. 437)

2. 조중동과 광동제약 불매운동

- 광동제약, 불매운동 하루만에 굴복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ist.htm?linkid=206&category=so&fid=547&dt=1244552938>
- ★★ 긴급동의!!★★ 광고주 불매운동 - 방향이 잘못 되었다. (아고라 펴)
http://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talk7&page=3&category=0&key_field=&key_word=&idx=1186289&ref=25565&step=1&level=0
- 조중동=> 체제를 유지, 옹호하는 상징적 기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 기독교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뜻을 살고 있는가?/살고자 하는가? 없다면/아니라면, 기독교/예수의 정신이 잘못되었나? =>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의 정신을 소리 높여 외쳐야!
 - 행실/열매에 대한 비판, 반성 => 기독교를 떠나든가, 안티
 - 상식에 따른 이해
 - 다른 길은?